

첨단기술·예술 접목, 문화콘텐츠·광주 브랜드 '생산기지'

글 쓰는 순서

- 1 예술극장
- 2 어린이 문화원
- 3 문화창조원
- 4 문화정보원
- 5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창조원은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광주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창조·생산기지'다.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창조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광주에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광주의 경제체질을 문화산업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창작 공간·스튜디오 통합 '창제작 센터' 구축
첨단 미디어 기기 활용 제작·전시 '복합 공간'
작가 작업현장 보고 체험하는 '시민참여공간'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첨단 영상 등 융·복합 콘텐츠

문화창조원은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융·복합 콘텐츠를 개관전에서 선보인다. 문화창조원이 지향하는 비전을 보여주는 전시인 셈이다.

모두 4개의 전시관에서 펼쳐지는 개관전시에서는 영상과 사운드 등이 결합된 작품들을 선보인다. 복합1관의 개관전시는 'The Ground - New Making'이다. 'The Ground'는 최첨단 영상시설을 갖춘 문화창조원 복합 1관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전시에서는 작가, 공학자 등이 영역을 넘나들며 작품과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는 세계를 엿볼 수 있다.

개관 프로그램으로는

'ACT(Art&Creative Technology) 페스티벌'이 열린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디어 축제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프리즈(Ars Electronica Prix), 맵핑 페스티벌(Mapping Festival), 소나 페스티벌(Sonar Festival) 등 국제적인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작품을 소개하는 국제 페스티벌 초청작 시리즈 전시 열린다. 개관전에는 로이치 구로와카, 료지 이케다 등 해외 작가와 국내 작가들이 참여한다.

복합2관의 전시 주제는 'Imaginary Circle, Asia Plastic Myths'(상상원 아시아·플라스틱 신화)이다. '상상원 아시아'는 40여 개의 다양한 크기의 공간들이 큰 원형을 이루고 있는 문화창조원 복합2관의 이름이다. 플라스틱 신화(Plastic Myths)는 아시아의 신화를 창조적 모티브로 활용한 전시다. 예컨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아이언맨과 같은 현대의 영웅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캐릭터를 제시하는 것이다.

복합3관의 주제는 '프로젝트 유라시아'이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유럽과 아시아의 문명과 국가들 간 중첩된 영토 영역을 시각화하는 영상물을 통해 조망하는 전시다. 복합 4관의 주제는 '신화와 근대, 비껴서다'이다. 아시아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거대한 강(江)을 통해 '경계와 구분'의 의미를 되새긴다.

아시아 크리에이터스의 집

문화창조원은 아시아의 다양한 창작자들이 예술과 과학, 인문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창작의 세계를 구현하는 공간이다. 또 창조적인 지식과 기술이 모여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창작자의 공간이다. 궁극적으로 예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조산업의 대안들을 찾아가는 예술과 산업의 융합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다. 창조원이 '크리에이터스(Creators)의 집'으로 불리는 이유다.

창조원은 다양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창·제작센터와 창작물을 전시하는 6개 복합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다. 창·제작센터는 랩(LAB·창작공간)과 3개



복합2관에 선보일 '상상원 아시아' 전시 이미지.



복합1관에 전시될 예정인 'The Ground'

의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랩에서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모집한 '크리에이터스'들이 공동 창작하게 된다. 창·제작센터의 인프라로는 '기계조형 스튜디오', '복합스튜디오', '디지털AV스튜디오' 등이 있다. 이들 공간은 융복합 콘텐츠 연구, 실험, 전시를 위한 특수 영상, 음향 시설을 갖춘 인프라다. 문화창조원에 들어선 복합전시관은 16m 높이로 대형 설치작품도 전시할 수 있으며 기둥이 없어 다양한 전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문화창조원에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사회와 공유하는 '시민공간'도 마련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새로운 문화 비즈니스 모델 제시할 것"

목진오 예술감독 인터뷰



목진오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은 "문화창조원을 문화와 예술, 첨단 기술이 융합된 광주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목 감독은 4일 "문화창조원은 첨단기술을 문화 산업과 연결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문화전당이 문화콘텐츠를 생산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닦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언급한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과 창작을 지칭한다. 예컨대, 버트릭스 휴대전화에서 터치방식으로 바뀐 것과 같다.

목 감독은 문화창조원의 창·제작센터에 대해 "특정 분야 전문가 뿐 아니라 신기술 동향, 미래의 기술을 내다보는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창작과 제작을 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조원의 수익모델과 관련, "갑보다야, 중

국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문화원형과 유적을 디지털 기술로 형상화한 현대적 콘텐츠로 만들겠다"며 "해당 국가들이 이 콘텐츠를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을 탐색한 뒤 창조원과 공동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시아의 신화를 현대적인 미디어로 재해석하는 작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연세대 디자인예술학부 교수인 목 예술감독은 홍익대를 거쳐 뉴욕대학교에서 인터랙티브 텔레커뮤니케이션학을 공부했으며,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휘트니 미술관, 뉴욕 첼시미술관 등지에서 뉴미디어아트 부문 전시 및 페스티벌,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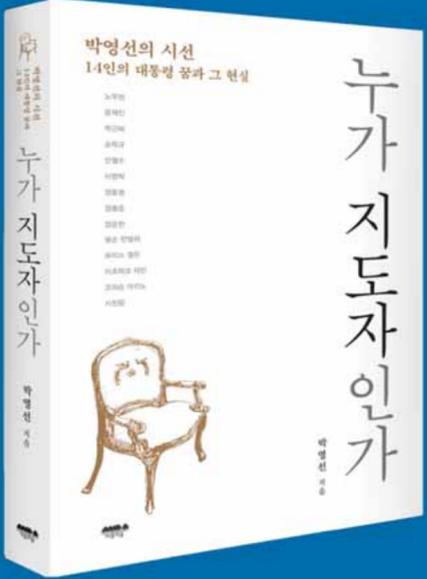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영선의 시선 의원 새 책

화제의 베스트셀러!

"누가 지도자인가" 저자 사인회

- 일시: 8월8일(토) 오후3시
- 장소: 광주 영풍문고 (종합버스터미널 1층)



누가 지도자인가











마음의숲